

봄의 생명력을 담은 아이, 서울수락초등학교 양혜린

그린레인저 푸른숲선도원을 만났습니다. 싱싱하게 물오른 봄의 즐거움 같은 소녀입니다.
숲은 이 소녀에게 어떤 곳일까? 이 소녀는 숲에서 무얼 배우고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꽃에서 박하냄새가 나요

“학교 야생화 화단에 박하가 있는데, 박하 앞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더니 친구들이 다 냄새를 맡았어요. 푸른숲선도원이 되면 이렇게 자연에 대해 즐겁게 배운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봄 햇살이 따스한 오후, 아이들이 하교하고 난 서울수락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만난 혜린이는 푸른숲선도원 활동이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같이 하자고 권유를 자주 한다고 한다.

“매주 목요일마다 자기개발 시간에 김성원 선생님과 함께 수락산에 올라가서 푸른숲선도원 활동을 하는데요, 맨날 보는 건데도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더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나를 담은 신갈나무

그전에는 숲과 나무에 관심이 없어 지나쳤었지만, 2년 동안 푸른숲선도원 활동을 해오면서 혜린이는 이제 관심도 많이 생기고 나무와 꽃 이름도 많이 알게 되었다면서 계속 나무와 풀 들을 손으로 만지게 된다고 하면서 배시시 웃었다.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신갈나무예요. 수락산에 제일 많아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익숙해져서 저와 닮은 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락산에서는 도시에서 맡아보지 못한 좋은 냄새가 많이 난다는 혜린이는 지난 식목일, 선생님과 함께 경기도의 한 산에 가서 전나무를 심은 기억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했다. 나무를 심는 방법도 알고 나만의 나무도 심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나중에 커서 내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면 기분이 묘할 것 같다고 했다.

새싹, 섬초롱꽃, 소나무에서 배운 것

“3,4,5,6학년에서는 다 숲, 나무, 자연에 관한 단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푸른숲선도원 활동을 하면 직접 만져보고 하니 이해도 더 잘되고 좋아요.”

숲이 오존층 파괴를 막아준다는 김성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숲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헤린이는 푸른숲선도원 활동을 하면 관찰력과 인내심 그리고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큰 나무 밑에 낙엽들 사이에서 새싹들이 나오는 것이 숲에서 가장 신기해요. 큰 나무들이 있으면 잘 못 자랄 것 같은데 새싹이 나오니까... 새싹도 이렇게 어려운 것을 참는데 나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종처럼 생겨 그 안에 반점도 있고 여러 색깔의 꽃을 피우는 섬초롱꽃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아 겸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헤린이는 또, ‘숲’ 하면 소나무가 떠오르다면서 애국가에도 있는 소나무의 꽃꽂한 기운을 본받고 싶다고 했다.

숲에서 모든 것이 생기니까

“숲에서 모든 것이 자라고 생기니까 숲은... 생명이예요.”

수락산 벽운 계곡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도롱뇽 알하고 개구리 알을 관찰했던 기억이 가장 재미있었다는 헤린이는 그래서 숲에게 앞으로도 공기정화를 잘 해주길 부탁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숲을 항상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글 · 고선희(푸른숲선도원취재기자))